



존경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즈음 언론 매체를 통해 그 동안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권력 남용, 기업 비리 등 불공정한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직자의 신념이자 기본 덕목인 '청렴'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자 전 직원이 반부패·청렴 활동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해 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1단계가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이는 한명의 노력이 아닌 직원 모두가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이 조직문화로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올해 저는 직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렴' 과 더불어 '안전' 이라는 기본가치를 중요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상태는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할 때만 이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청렴하지 않다면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청렴이 기본전제로 담보될 때 안전도 확보된다 할 것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흰쥐의 해며, 예로부터 흰쥐는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연구원에 청렴·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직원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박원석

